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HMM, 15억달러 이상 발주 준비

HMM이 13,000TEU급 전통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2척, 총 14.4억달러 이상을 발주할 준비 중이라고 보도됨. 현재 HMM은 국내 조선 3사와 건조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알려짐. 이들 선박은 2025년까지 110만TEU 규모의 선대를 확보하려는 선대 확충 계획에 따라 발주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한국조선해양 VLGC 2척 선주는

최근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86,000CBM급 이중연료추진 VLGC 4척의 선주는 SK해운과 싱가포르 선주 Eastern Pacific Shipping이라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되어 Trafigura에 용선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Trafigura는 SK해운 및 싱가포르 EPS와 5~7년 기한의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 LNG추진선 발주 급증

4월 한 달 동안에 30척 이상의 LNG추진 선박이 발주됐다고 보도됨. 3월 대비 +50% 증가했으며 2021년 현재까지 발주된 LNG추진선은 80척이라고 보도됨. 선종별로는 벌크선,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Ropax, 예인선 등 다양한 선박들이 LNG추진시스템을 선택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De Stoop, 탱커 중기 전망 낙관

COVID-19로 인해 탱커 시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OPEC+의 증산이 희망을 줄 전망이라고 보도됨. OPEC+의 5~7월 중 214만bpd를 증산할 계획이며, 백만bpd 원유를 수송하는 데 VLCC 30척으로 알려짐. 노후선 해체량이 여전히 적은 상황은 이란산 베네수엘라산 불법 원유 수출에 투입되는 현상에 기인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현대중공업,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제출

한국거래소는 현대중공업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했다고 6일 밝힘. 현대중공업은 상장 승인을 받는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일반 청약 등을 거쳐 빠르면 8월 상장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조선비즈)

## 현대중공업, 동해에 그린수소 생산플랜트 구축

현대중공업은 9개 지자체 및 산학연 기관과 '부유식 해상풍력 연계 100MW급 그린수소 생산 실증설비 구축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MOU에 따라 각 기관은 오는 2025년까지 동해 부유식 풍력단지에서 100MW급 그린수소 실증설비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1.2GW급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를 가동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됨. (뉴시스)